

태동이 중요합니다.

태동이 왜 중요한가요 ?



태동의 패턴 변화는 태아의 건강이 좋지 않다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사산을 경험한 여성들의 절반 정도가 태동이 줄어들거나 멈춘 것을 느꼈습니다.

나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

어떤 경우에도 태동의 변화로 인해 우려가 된다면 즉시 담당 조산사나 의사에게 연락하십시오.



여러분이 의사나 조산사의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태아가 얼마나 자주 움직여야 하나요 ?



정상적이라고 정해진 태동의 횟수는 없습니다.

태아가 움직이는 패턴을 파악해야 합니다.

태아의 움직임은 발차기나 꼬지락 하기, 회전이나 구르기 등으로 묘사될 수 있습니다.

태반의 위치와 상관 없이, 임신 16-24 주 사이에 태동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 절차는 무엇입니까 ?

해당 의사나 조산사는 산모가 산부인과 병동에 내원하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주 7 일, 24 시간 직역 상주).

다음과 같은 검사가 실시될 수 있습니다 :

- 태아의 심장박동 확인
- 태아의 발달 측정
- 초음파 스캔
- 혈액 검사



태동에 관한 일반적인 오해



출산 예정일이 다가올수록 태아의 움직임이 줄어든다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산모는 진통이 시작될 때까지, 그리고 진통 중에도 계속 태아의 움직임을 느껴야 합니다.



아기의 태동이 걱정될 때, 태동을 자극하기 위해 무엇을 먹거나 마시는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 : movementsmatter.org.au

후원 : Royal Australian and New Zealand College of Obstetrics and Gynaecology (RANZCOG), Bears of Hope and Sands 및 아래 기관들. 우리가 캠페인을 활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준 Tommy's UK 에 감사드립니다. 이메일 연락처 stillbirthcare@mater.uq.edu.au

